

2020 신년사



영광군
YEONGGWANG-GUN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흰쥐의 해” 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이라는 큰 뜻을 품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군 단위 청렴도 1위, 청소년정책평가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인구정책평가 및 농정종합평가 1위 등 중앙과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얻어 투명하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은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로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4대 분야 45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힘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저와 670여 공직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에 방책을 정하러던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정신으로 올해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이모빌리티 산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모빌리티 규제 특례 실증(5개 과제 9개 분야),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56.1km, 110억 원),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240억 원)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이모빌리티 시티(City) 영광’의 이미지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단계로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20MW, 260억 원)을 구축하고, 굴비골영광시장을 현대화(136억 원)하여 상인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10개소)와 청년창업단지 조성(880㎡, 35억 원), 점차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유통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인의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100% 분양(85.7%→100%) 하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행복이 있는 따뜻한 포용복지를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장애와 비장애 차별 없이 군민 누구나 고르게 포용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때에 맞춰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을 통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민관 복지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영광곳간 ‘착한가게’는 빠른 시일 내에 200호점(115호→200호)까지 달성하고 일반 군민들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군남보건지소**(2층, 409㎡)를 개소하고
낙월면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착륙장**(1개소)을
설치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타운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9개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 1,000원 여객선 도입(5,000원→1,000원) 등
군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셋째, 안정된 소득으로 살맛나는 부자 농산어촌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農夫餓死 枕厥種子)는 농부의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로 주요농산물(고추, 대파, 양파)의 유통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시겠지만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51억 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연2회) 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소득과도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청정 축산농장 조성(2개소)과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축 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 청정 영광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낙월도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100억 원), 송이도 마을 특화사업(20억 원), 안마도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50억 원)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낙월면을 ‘블루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참조기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터 조성(400억 원), 천일염 수매제 확대(4,000톤→6,000톤)와 천일염을 활용한 제설제 개발 등 굴비와 천일염 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웰니스(wellness) 문화·관광·스포츠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칠산대교 개통으로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영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백수해안노을관광지 조성(195,698㎡, 358억 원),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59억 원),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30km, 54.6억 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며,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137,517㎡→235,580㎡, 159억 원)을 착공하는 등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 효과가 우리 군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관광객 300만 명 시대(190만 명→300만 명)를 앞당기겠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상사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군만의 특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불갑산에 야생화 생태공원(11,513㎡, 62억 원)과 상사화전시교육관(2동, 224㎡, 8.6억 원)을 만들고, 꽃무릇, 진노랑 상사화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상사화를 대량 식재하여 365일 상사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영광문화원을 새 건물로 이전(영광예술의전당 내) 하고, 작은 영화관 건립(109석 규모, 25억 원)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4월에 개최(4. 21.~4. 24.)되는 제59회 전남체전을 우리 군의 스포츠 역량뿐만 아니라 행정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이 중심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000원 버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도 목적지까지 안전한 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도우미 서비스’ (2명)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72억 원)하여 정수장, 상수관로 등의 공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식수전용 저수지(2개소, 400억 원)를 조성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복주택(300호, 334억 원),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20호, 26억 원), 모악지구 신규마을(50호, 10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9,760㎡, 130억 원) 및 영광 하이패스 IC 건설(95억 원)도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신월지구 배수개선 사업(수혜면적 62.5ha, 80억 원)과 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300억 원)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숨쉬기 편한 쿨 시티(Cool City) 영광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녹색 영광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에 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우리 군이 추구하는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영광군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2021년까지 백수읍·염산면사무소를 신축(50억 원)토록 준비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통해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군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건강 100세를 대비하는 ‘행복드림버스’의 도입으로 문화·보건·복지 등 찾아가는 힐링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행복드림버스와 연계한 읍·면 순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104개소)하여 군민의 생활 속 불편함까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쳐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찢고, 어미 닭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바깥에서 동시에 껍질을 쪼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광발전을 위해 군민들께서도 바깥에서 성원하고, 참여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셔야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군민의 뜻이 곧 영광군의 힘입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저와 670여 공직자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영광군 발전을 위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영광군수 김준성